

학령기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민 하 영 (대구기독교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 특성 등 아동의 내적 특성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내외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서울시내 4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479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조사 자료는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t검증, 이원변량분석, 그리고 중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첫째,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내외통제소재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녀 아동 모두 내적인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외적인 통제 아동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로움은 또래-소외의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아동 모두 또래-소외 상황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아동일수록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통제소재와 대처행동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나 남아의 외로움은 내외통제소재와 공격적 대처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즉, 외적인 통제소재 성향이 있는 남아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적인 통제소재 성향이 있는 남아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 경우 외로움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로움은 내외통제소재와 소극적 대처행동 등 아동의 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받으나, 내외통제소재보다 또래-소외 상황에서 사용하는 소극적 대처행동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적인 통제소재의 내재화 및 소극적 대처행동 지양이 학교 생활에서의 외로움으로부터 아동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 원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보호 요인으로 내적통제소재와 대처행동이 활용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